

재주베, 고래워!

RaonAlli 13th MYANMAR YANGON

그 첫번째 재 이야기



| contents |

Introduction

팀원 및 스태프 소개

Raonatti Activity

흘랑따야, 쉐삐따, 마 오폴라바, 아띠클럽

Inside 라온아띠

- ① 보족시장 투어
- ② 산드라네 'home visiting'
- ③ 생활의 일부 '버스'
- ④ 생활의 일부 '슈퍼마켓'
- ⑤ 팀원들과의 소통 '인생로드'
- ⑥ 양곤은 파고다 천국 '파고다 관광'
- ⑦ '여가 생활'

부록

버터씨의 버터시

갯잇 솔티 '미얀마의 여름을 건디는 밥'

다함께 미얀마 EVERYBODY MYANMAR

선진이는 바잇사레 '숨겨진 맛집, 파워'

정선생의 쓱쓱 미얀마어

다섯의 이야기 essay



MARCH, 2015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3	4 19:00 pm 인천출발	5 11:00 pm 양곤도착	6 양곤YMCA 라운딩	7 쉐빠따 첫 방문	8 산드라네 HOME VISIT
9	10	11	12	13	14	15
YMCA 널서리, 마 오픈라바, 흘랑따야 첫 방문 & 계획세우기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흘랑따야	26 오픈라바	27 쉐빠따	28 오픈라바	29
30	31					

INTRODUCATION 01

라운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원 소개와 미얀마에서 함께하는 호스트기관의 동반자들을 소개한다.



Introduction

지난 3월 5일 밤 열한시, 단원들은 꿈에 그리던 양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딱 한달 후, 아띠들은 어떤 일을 하며 어떤 한 달을 보냈을까? 씬 없이 달려온 지난 한 달을 소개한다.



SULE PAGODA

미얀마를 수식하는 흔한 수식어구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양곤팀이 양곤국제공항에 도착한 지난 3월 5일 늦은 밤 11시, 도시 한가운데 우뚝 솟은 쉐다곤 파고다는 과연 황금색으로 빛났더랬다. 온통 황금으로 뒤덮여 찬란히 그 자태를 뽐내던 그곳을 지나며 그들은 한껏 들뜬 ‘관광객’ 마냥 말했더랬다. “여기다 싫어요” 라고. 그러나 그토록 빛나던 쉐다곤 파고다만이 양곤의 전부는 아니었으니, 라온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의 좌충우돌 현지 생활에 대해 취재해 보았다.

좌충우돌 양곤 생활기

“우리... 미얀마에 가기는 하는 건가요?” 이미 그들의 눈은 굶주린 거지마냥 켜하기 그지 없었다. 비행대기시간 12시간, 비행시간 6시간. 총 18시간의 기다림 끝에 도착한 미얀마 양곤국제공항!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온몸을 휘감는 낯선 온도와 낯선 냄새들 뿐이었다. 경계와 설렘 속 첫 발을 내딛은 그들이 이곳에 온 지 어느덧 한달이 지났다. 그들은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무얼 하며 보냈을까?



Introduction

라온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 팀원 소개

미얀마는 작년에 이어 두번째 기수가 파견되는 나라이다. 지난 기수와는 다르게 또 얼마나 기이하고, 서로 다른 5인이 파견되었을까. 떨어져 있을 땐 각자만의 모양을 지녔지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처럼 각자만의 개성으로 뽄뽄 뭉친 다섯 명의 아띠들을 소개한다.



최종욱(26세)/Jong

스물 여섯이라고 믿기지 않는 짧은 턱과 귀여운 외모를 소유한 팀의 든든한 말미. 롤러코스터 마냥 질주하는 미얀마 버스와 지나가는 일본

외제차들 속, 유유히 자신의 속도를 지닌 채 느리게 걷는 싸이카 같은 남자. 나쁘게 말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느린 사람, 그러나 좋게 말하면 아주 차분한 사람. 특기는 “나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것, 취미는 지나친 배려, 별명은 언제 어디서나 묻어내는 느끼함으로 ‘버터씨’ 되겠다.



홍선진(24세)/Sun

‘모든 것이 내 나라와 같길 바란다면 내가 왜 여기와 있겠는가’ 그녀가 산티아고 수기집에서 발췌해 팀원들에게 알려준 글귀이다. 언제 어디서나 긍정

의 말을 전하며 때론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말로 우리를 놀래키는 선진웅. ‘빨래’, ‘서울살이 몇했가요’ 등의 뮤지컬 노래부터 시작해 한국동요를 즐겨 부르는 팀의 쉼박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도 싫은 건 싫은 알쏭달쏭한 여자. 취미는 무엇이든 읽어야 적성이 풀리는 활자중독, 특기는 밥 먹다 화나면 설거지하기.



이한솔(23세)/Sol

‘잘자’를 ‘달다’로 ‘충전해’를 ‘툰던해’로 바꿔버리는 우주초큐트결정체. 더운 날씨에 매번 툭툭대다가도 아이들만 만났다 하면 완벽하게 무장해제 되어버

리는 여자. 빵, 술, 볶음밥, 맛있는 밥, 똥냄새 나는 밥 등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언제나 그녀의 계란 후라이에서는 흙 맛이 난다.) 쉬는 시간만 되면 원카드와 뺑카를 제안하는 카드 중독자이며, 자신이 유리한대로 규칙을 바꾸어버리는 재주가 있다. 취미는 아무 이유 없이 간지럼 태우기, 특기는 태구 괴롭히기 되겠다.



김어린(22세)/A

빠른 95 태규와 함께 팀의 막내이고자 하였으나, 태규의 빠른 거절로 막내의 타이틀을 빼앗기고 말았다. 스스로 지난 삶에 대해 ‘거짓된 삶’이라며 눈

물을 보이던 그녀를 잊어라. 미얀마에 와서는 맨 얼굴부터 시작해 방구부터 응가까지 트며 자신의 진솔한 모습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대단한 과업주의자이며 취미는 작심일일의 다이어트 결심 특기는 종옥오빠 과자 뺏어 먹기 이다.



정태규(21세)/Q

팀의 막내인듯 막내 안 같은 너. 올해로 미얀마 방문이 3번째인 숨겨진 여행의 고수. 아주 계획적이고 치밀한 두뇌로 하루 계획과 시간을 엄수하는 것을 원

칙으로 삼음. 각종 술을 매우 즐겨 마시며, 팀 내 형아와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취미는 일단 거절하기, 특기는 거절 후 알려주기 되겠다.

Introduction

라온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 현지 스태프 소개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라온아띠 프로그램은 한국YMCA 전국연맹과 파견국가의 YMCA 및 까리타스와의 협업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미얀마 양곤으로 파견된 아띠들은 12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양곤YMCA를 호스트기관으로 두고 생활한다. 양곤YMCA는 신관과 구관 총 2동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 111명의 직원을 지닌 역사 깊은 기관이다. 건물은 사무실과 게스트 하우스로 쓰이며, 소자본 대출의 마이크로 파이낸스, 모바일 클리닉, 널서리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아띠들이 선정한 사이트는 흘랑따야, 쉐빠따, 마오꼴라바 등의 총 세 곳. 단원들은 일주일을 짝 채워 최소 1번 이상 최대 2번의 횡수로 사이트를 방문한다. 이름도 낯선 사이트들은 미얀마 현지 버스를 이용해 왕복 2시간을 거뜬히 넘는 곳에 위치해 있다. 버스를 타고 사이트에 도착해 널서리 선생님들, 혹은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돕기 위해 시종일관 아띠들과 함께 활동하는 현지 스태프들이 있다. 잠만 따로 잘 뿐이지, 그들은 언제나 아띠들과 함께 움직이며 단원들의 안전을 책임진다. 도로를 짝 채운 교통체증을 함께 견디고, 런치 박스 안의 질긴 고기도 함께 씹어주는 그들을 소개한다.

'BLESSING'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늦은 밤, 11시 양곤국제공항에 도착한 단원들을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은 양곤Y의 사무총장님 닥터 따난과 라온아띠 담당 간사님 산드라. 두분께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얼굴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다음날 첫 미팅에서 따난은 단원들에게 “가난하지만 도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부터 배우라”며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어 산드라도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에서 받은 축복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라”며 단원들을 응원해 주셨다.

Introduction

라온아띠 13기 미얀마 양곤팀 현지 스태프 소개



동반자 원원, 우똘이, 뽀뽀, 프리티 엘렉스

아이들을 도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는 YMCA 스태프들은 잠만 따로 잘 뿐이지 거의 모든 생활의 일부분을 함께한다. 식사를 마련해주고, 다방면의 생활을 돕는 등 YMCA 직원이 100명에 이르는 만큼 단원들을 도와주는 스태프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동반자 4인을 소개한다.

‘마음 만은 젊은 청년’ 노년의 신사 원원, 우똘이 두분은 오랜 시간 동안 YMCA에서 근무해오신 베테랑 직원이나 다름 없다. 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모습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 특히 우똘이 아저씨께서는 ‘미얀마에 왔으니 미얀마어를 해야 한다’하시며 생활 미얀마어를 알려주신다.

-더위에도 빛나는 그녀의 미모 ‘뽀뽀’
‘꽃’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뽀뽀. 마른체구에 또렷한 눈매를 가진 그녀의 미모는 땀별 더위에서도 빛난다. 영어, 미얀마어에 능통하며 우리의 생활 미얀마어 번역 선생님이자 주전부리를 담당하고 있다. 마른 체구가 의심될 정도로 먹을 것을 좋아하며 항상 점심 이후에 맛있는 것을 찾으러 다닌다.

-막내 스태프 ‘마이 프리티 엘렉스’
엘렉스는 한달 간 YMCA 스태프 훈련과정의 일환으로 아이들과 동행했다. 처음엔 말 수 적고, 얌전한 청년인 줄로만 알았는데 열여덟의 어린 나이에 할 건 다하고 알 건 다 아는 어엿한 청년! 막내답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RAONATTI ACTIVITY 02

단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3곳의 사이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양곤Y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미얀마 청년들과 아띠 클럽'을 함께한다.

Hlaingthayar

집을 세워 올리려 나무 톱질을 하는 소리와 밥을 짓는 냄새, 빨래를 두드리는 방망이질 소리 가득한 평화로운 곳 흘랑따야. 그러나 또한 흘랑따야는 미얀마 정부의 토지정책으로 인해 밀려난 이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픔을 간직한 마을이기도 하다. 그곳에서 만난 행복한 아이들을 소개한다.



소요시간: 왕복 4시간
활동날짜: 매주 월,화
활동시간:
별서리: 11:00-12:30/2:30-3:00
아미스쿨: 매주 화요일 1:3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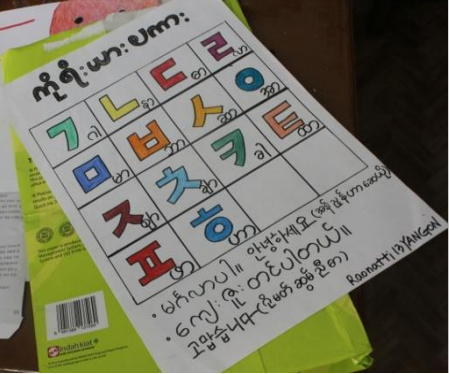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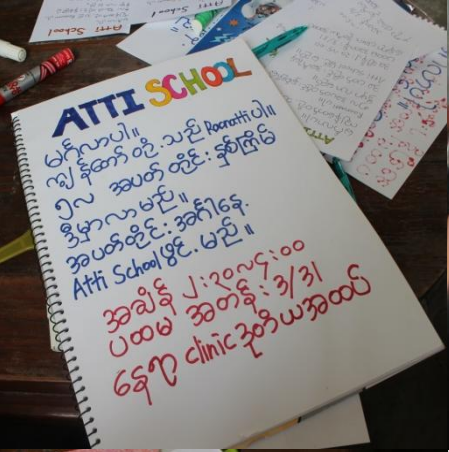
어색했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다섯명의 단원이 흘랑따야에 위치한 널서리를 방문 하던 첫날, 온몸을 휘감던 어색함을 잊지 못한다. 그냥 잠시 사이트만 보고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 단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널서리 안으로 들어섰고 “두유 해브 애니 플랜”이라는 동반자의 말을 듣고 어안이 병병한 채 서로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12기는 이곳에서 아미스쿨을 열었다던데 마을은 썰렁할 뿐이고, 와르르 달려와 안기던 다른 사이트의 아이들과는 달리 다소 아미들을 경계하는 듯한 아이들을 보며 그들은 생각했다. “우리, 친해질 수 있을까?”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첫 만남의 어색함을 뒤로하고, 한 달을 달려온 단원들의 흘랑따야 생활을 탐구해본다

노래와 몸을 부딪히는 활동으로 다가간다

유아교육과를 전공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얀마어과에 재학중인 정태규 단원을 제외하고는 미얀마어를 못하는 단원들이 아이들에게 글자를 알려주거나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때문에 단원들이 아이들과 함께할 활동으로 선정한 것은 노래와 체육활동 위주의 놀이었다.

아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글자 수업 이후에 11시부터 점심 시간 이전까지 약 30여분의 시간과 낮잠 이후 간식시간 및 하교 시간이다. 아미들은 약 30분의 시간을 활용해 한국 동요 ‘뽀뽀뽀’와 율동을 함께 부르고, 간식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는 ‘꼬리잡기’ 등의 체육활동을 주로 했다.



‘예상 밖의 마케팅이 성공을 거두다! ‘아티스쿨’

단원들은 ‘마을 주민과 만나볼 기회가 적었다’는 12기들의 피드백에 따라 아티스쿨을 활용해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다양한 생활공예품을 만드는 활동 등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마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을 모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아티들이 고안해 낸 홍보 방안은 널서리 아이들을 배웅해주며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님들께 홍보 전단지지를 돌리는 것이었다. 단원들은 열심히 미얀마어로 손수 찍어낸 수제 홍보 전단지지를 만들어 냈다.

2주간의 홍보 끝에 첫 아티스쿨이 열리던 날, 단원들을 찾아온 것은 방학을 맞이한 초등학생들이었다. 어머님들께서는 집에서 놓고 있는 자녀들을 아티스쿨로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무려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우리를 찾아와 주었고, 단원들은 한국어 수업 및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주에도 와!’ 최강무기 페이스페인팅

첫 아티스쿨이 열리던 날은 3월의 마지막 주였다. 때문에 단원들은 널서리 아이들에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기로 계획중이었고, 어떻게 날짜가 잘 맞아 떨어져 아티스쿨에 찾아온 아이들에게도 페이스 페인팅을 해주게 되었다. 대상이 어린 초등학생들일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에 페이스 페인팅을 준비해가지는 않았지만, 첫 모임에 그렇게도 들뜨고 행복한 표정을 하고 달려와준 아이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성심 성의껏 얼굴에 그림을 그려주었다.

물론, ‘다음주에도 꼭 와’ 라거나 ‘이름이 뭐야?’라는 작업성 멘트도 잊지않았다. 옷에 물감을 묻혀가며 그려준 페이스 페인팅이 아이들과 단원들 사이의 촉매제가 되어준 것 같아 새삼 울산에서의 경험에 감사를 보내게 된다.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뽀뽀'

다른 널서리 사이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흘랑따야에서 아띠들은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미술수업을 하는 것 뿐이었다.

국내훈련 기간, 울산 YMCA에서 '유아체조'를 배운 경력을 지닌 단원들은 '뽀뽀'라는 한국동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단원들은 카세트도 그렇다고 음향 좋은 스피커도 없는 이곳에서, 커다란 목소리와 큰 동작으로 열심히 뽀뽀를 부르며 울동을 흥내냈다. 그러나 아이들은 멀뚱멀뚱한 눈으로 아띠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처음이라 그러겠거니'하는 자기위안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라이트로 웃바(따라하세요)'를 외쳤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두드리다 보니 이게 웬걸. 아띠들의 수업시간 외에도 글자공부를 하거나 종이접기 시간에 뽀뽀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이 늘어났다는 후문이다.

이달의 주제는 '친구' 그리고 '꽃'

아이들의 연령대는 단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렸다. 손쉬운 종이접기도 잘 따라할 줄 몰랐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세웠던 커리큘럼에 포함된 '상상화 그리기', '나의 꿈 그리기' 등의 항목은 모두 제외되었다.

3월의 노래가 '뽀뽀'였던 만큼 '친구'를 주제로 하여 미술수업을 진행하였다. 친구라는 단어를 미안마어로 알려주고 색칠공부를 진행하거나, 친구의 얼굴을 서로 그려주는 활동도 아이들과 함께 했다. 꽃을 접어 벽에 붙이는 종이접기 수업도 진행했다. 흘랑따야 아이들은 돌려쓰는 색연필이 낯선 듯 색칠을 위해 색연필을 나누어주면 색연필 한자루를 가지고 한참을 가지고 놀았다. 손잡이를 돌려보고, 분해해 보고, 결국엔 망가뜨리기 일수였다. 단원들의 수업은 일주일에 두 번 뿐이지만, 아이들이 아띠들의 미숙한 수업을 통해서나마 여러 가지 색깔을 접하고, 여러가지 색을 이용해 그림을 그릴 수 있길 바란다.

| Shwepyitha |

버스를 타고 2시간여를 달리다 보면 대도시의 풍경을 벗어나 먼지 자욱한 비포장도로가 눈에 띈다. 한국에서 수입한 다 망가진 중고버스를 타고 2시간여를 달리다 작은 트럭을 개조한 라인트럭을 타고 또 15분. 들성들성 세워진 나무판자집에 둘러싸인 작은 사찰학교, 그곳이 우리의 두 번째 사이트 쉘베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쉘베따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주민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한 이주촌이다.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왕복 소요시간만 다섯 시간. 엉덩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즈음, 우리는 쉘베따에 도착한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 도착한 그곳에선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12기 인수인계 때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본 마을의 위생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길거리와 물이 고인 땅에 버려진 쓰레기가 예상외로 너무 많았고,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도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YCDC라는 쓰레기 처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학인 사찰학교에는 아이들이 없어 썰렁했고, 학교 수업도 열리지 않아 지난 기수가 활동했던 수업조차도 할 수 없었다.

단원들은 이토록 불확실한 곳에 2시간 30분이나 걸려 와야하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결국 몇 차례의 논의와 다툼이 오갔다. 이곳을 애초에 사이트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이트를 더 가자는 의견. 지금은 아이들이 없으니 개학을 하는 6월에 다시 오자는 의견. 선불리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관찰하고, 우리가 할 것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의견.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 등.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다섯 명의 단원은 쉘베따를 사이트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원들이 결정한 활동은 사찰학교 내부를 시작으로 환경정리 활동을 한 후 간단한 놀이거리를 준비해 아이들을 모아보는 것. 그렇게 마을의 거리를 다듬는 손길이 늘어나고, 아미들을 반겨주는 아이들이 모여들게 하는 것이 첫 목표였다. 결정의 이유는 어찌되었든 계속 찾아가고, 다가가 쉘베따에 놓여있을 어떤 '가능성'을 찾기 위함이었다.



환경정리 그리고 '친구들 만나기'

아이들은 사찰학교 내부의 담벼락을 둘러싼 쓰레기들을 먼저 제거하기 시작했다. 쓰레기의 종류는 세제, 칫솔, 과자, 공 등 매우 다양했고 대부분의 쓰레기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는지 땅 깊숙이 파묻혀 있었다. 마을의 아이들은 대부분 맨발로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각이나 유리조각도 유의하여 수거하였다. 약 한 시간 정도의 환경정리를 하니, 사찰학교의 1/4 정도를 둘러싼 담벼락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었다.

앞서 말했듯 쉼베따에는 YCDC가 들어오지 않아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안 밖에는 없음을 파악하였고 지금은 더운 날씨로 소각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수거한 쓰레기는 사찰 뒤편의 소각장에 모아 두기로 결정하였다.

환경정리 이후에는 쉼베따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무리에 접근해 보았다. 접근 방법은 손수 만든 '딱지 8개로 유인하기'. 열댓명이 넘는 무리들 속 무려 2명의 친구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었고, 단원들은 두 명의 친구와 도란도란 딱지치기를 하였다는 증언^^.



딱지가 맺어준 인연, 쉼베따에서 '아띠 스쿨'을 열다.

쫐 짜이퉁. 쉼베따에서 함께 딱지치기를 했던 소년의 이름이다. 환경정리 후 간단한 놀이거리를 준비해 갔던 아띠들은 여덟개의 딱지를 접어 쉼베따에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 쫐 짜이 퉁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에게 여덟개의 딱지를 다 빼앗기고 돌아왔다. 그 소년은 정말이지 딱지신동이었던가. 그 다음주, 소년은 자전거를 타고 사찰학교 주변을 맴돌았고, 우리는 환경정리를 끝내고 마을을 돌며 소년의 자전거를 빌려탔다. 그렇게 또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소년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와 우리를 반겨주었다. 그리고 이내 맨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쓰레기 봉지와 집계를 나눠 들며 환경정리를 하는 단원들을 도와주었다.

쫐 짜이퉁과 소년의 친구들은 우리가 우리끼리 무심코 내뱉는 한국말을 곧잘 따라했다. 소년의 친구들은 12기 단원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들의 친구이며 '꼬리아 루묘(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자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한 친구들은 단 7명. 흘랑따야에 비해 매우 적은 인원이지만 아띠들은 환경정리 활동 이전에 매우 더운 1시 30분 부터 3시까지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얼굴도 이름도 낯선 다섯명의 아띠와 일곱명의 쉼베따 친구들이 그려나갈 아띠 스쿨을 기대해본다.

쉐베다 이모저모

단원들이 앞서 소개한 쉐베다는 마치 어느 나라의 덤프사이트와 같은 '쓰레기 천국'처럼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쉐베다는 각각의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마을'이다. 한적한 시골의 풍경과 아기자기한 먹거리가 있는 쉐베다의 풍경을 담아보았다..



| North Okkalapa |

아이들이 머무는 양곤YMCA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 오플라바. 그곳은 카렌족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밍글라'라고 먼저 인사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어르신들이 있는 그곳, 우리의 마지막 사이트 마 오플라바이다.



소요시간: 왕복 3시간
활동날짜: 매주 수,금
활동시간:
널서리 보조: 10:30-11:30/
2:30-3:00

'잘 하고 싶은' 마 오플라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찾아간 뜨거운 오후의 마 오플라바. YMCA 널서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단원들을 환영해주었다. 선생님들께선 12기가 만들어놓은 꽃접기를 연신 가리키며 이들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후에 그녀들은 아이들을 일으켜 세워 수업시간에 배운 듯한 알아들을 수 없는 여러 개의 시와 노래를 부르게 하였고, 우리는 그에 대한 화답으로 투애니원의 아이돈케어와 옛날 옛적 투피엠의 하트비트를 취야 했다. 썰렁한 반응은 덤이었달까. 처음부터 미안마 동요였던 것처럼 뽀뽀뽀를 부르는 아이들과 바나나향 나는 빵을 내어주시던 선생님들을 보며 아이들은 생각했다. "야, 이거 잘해야 겠다" 라고 말이다.

3월의 노래 '개울가에 올챙이 한마리'

아이들이 도착하면 한걸음에 달려와 안기던 마 오플라바 널서리 아이들. 그들은 지난 기수가 알려준 한국 동요를 매번 불러댔다. 흘랑따야와 마찬가지로 마 오플라바에서도 동요와 미술수업을 주로 진행하였다. '뽀뽀뽀'를 익히 알고 있는 이곳의 아이들에게는 한국의 '올챙이 송'을 알려주고 함께 부르는 활동을 지속했다. 3월의 노래가 '올챙이 송'이었던 만큼 '개구리'와 '올챙이'라는 단어를 미얀마어로 알려주고 글자가 포함된 색칠공부, 사과나무에 사과를 접어 붙이기 등의 활동도 더불어서 진행했다. 단원들은 처음 한 달은 널서리 살피기에 전념하였다면 점심시간과 낮잠시간을 활용하여 마을을 둘러볼 것으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 오플라바 이모저모

세상에 조건 없는 사랑은 없 않지만, 그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마 오플라바 아이들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준다. 다가와 안기고, 엄마가 싸주었을 맛있는 반찬을 건네고, 낮잠 자고 나서 먹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을 간식을 아낌없이 내어준다. 자신에게도 관심을 보여달라고 보채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몇일을 두고두고 기다렸다가 한번 안기는 아이들도 있다.



우리가 가진 '도구': 페이스 페인팅

울산YMCA에서 단원들이 배운 여러가지 기술들 중 하나는 '페이스 페인팅'이었다. 단원들은 아기 스포츠단 아이들의 얼굴에 돌고래와 거미, 하트와 잠자리, 꽃과 축구공을 그려주며 생각했다. '우리가 이것 왜 하고 있지?'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일까?' 아띠들의 물음에 송진호 사무총장님께서 '아이들과 친해지는 도구로 활용하라'고 답해주셨다. 단원들은 그래도 풀리지 않는 체증을 안고 미안마에 왔지만, 페이스 페인팅을 한 이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게 국제자원활동으로 얼마만큼의 의미를 지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 그럼 된 거 아니겠냐고.'



| Atti Club |

매주 토요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모이는 곳 Atti Club - 양곤 YMCA 5층 도서관



청년들과의 유익한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우리는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한다. 바로 '아띠 클럽'. 아띠 클럽은 아이들과 만나는 활동이 대부분인 우리에게 청년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시간이다. 아띠 클럽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아띠 클럽. 특히 전 기수인 12기와 돈독한 관계를 쌓았던 스마일 오빠(?)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인데 참여하는 청년들의 한국어 이해와 수준이 다르므로 분반을 나누어 함께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들과 한 달에 한 번 멀지 않은 곳으로 피크닉도 갈 예정이다.

실패 후 대성공, 첫 만남

3월 21일. 기대와 설렘으로 준비한 첫 만남. 그러나 아무도 참석했던 사람이 없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알려주었다. 홍보의 부재, 연락의 부족, 방학기간 동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는 청년들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더욱 더 열심히 그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사진은 4월 4일, 진정한 첫 만남을 가졌던 날의 모습이다. 지난 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참석한 청년들이 많아서 아띠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사진 속 청년들의 모습이 조금은 험악(?)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첫 만남을 마쳤다.

INSIDE RAONATTI & 부록 03

활동 시간 외의 좌충우돌 5명의 생활 엿보기와 생활TIP까지.



INSIDE raonatti - ①보족시장투어

보족시장은 미얀마 관광객이라면 들러야할 필수 코스나 다름없다. 지난 3월 5일 단원들은 '양곤 둘러보기'라는 명분아래 미얀마 쇼핑의 메카라고 불리는 보족시장에 방문했다.



관광객 코스프레 '보족시장'으로~

보족시장은 영국 식민시절인 1926년에 건설된 곳으로 중앙에 돔 형식의 단층 건물이 있고, 그 주변을 2층 건물이 감싸고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미얀마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시장으로 각종 보석과 유명 메이커 제품, 그리고 미얀마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스콧시장이라고도 불리며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에서 환전을 하기도 한다. 단원들도 오랜만의 휴일을 맞아 예쁘게 차려 입고 보족시장 나들이에 나섰다. 한국으로 가기 전 어느곳에서 기념품을 사갈지 미리 점검어 두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INSIDE raonatti - ②산드라네 HOME VISIT

단원들의 어머니 다름 없는 호스트기관의 라온아띠 담당 간사님 '산드라'. 그녀는 미얀마에 온 단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다. 따뜻한 얼굴로 아띠들을 반겨주었던 산드라네 'home visit' 방문후기다.



우리의 첫 home visiting

3월 8월 미얀마에 온지 4일밖에 되지 않은 5인은 양곤Y 라온아띠 담당 간사님이시자 아띠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산드라네 집에 초대를 받았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여를 달려 아띠들은 사이트 중 한 군데인 마 오폴라바 근처에 위치한 어느 주택가에 도착했다.

우리를 보자마자 어서 들어오라며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시던 산드라의 어머니, 동생, 딸, 아들들과 여러 친척분들. 그야말로 대가족이었다. House

opening party로 그 맛을 잊을 아띠들은 맛있는 카욱쉐쵸(볶음 국수)를 먹었고 또 아직도 수 없다는 환상적인 파파야수박 주스 또한 대접 받았다.

그리고 바로 옆에 위치한 산드라네 집으로 이동했다. 아띠들은 러펫도우(찰잎에 무친 땅콩)와 미얀마 녹차 레페예잔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이 곳에서 산드라 동생분은 종옥 단원을 가리키며 so silent 라 하셨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남았다)



INSIDE raonatti - ③생활의 일부 '버스'

매번 교통 수단을 이용해 활동하는 우리에게는 버스 타는 것도 활동의 일부나 다름없다. 양곤생활 한달 째,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미얀마 버스에서 살아남는 법을 소개한다.



미얀마의 버스를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미얀마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버스를 볼 수 있다. 미얀마의 버스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중고 버스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사진 속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버스에 탈 때에는 창문이 있는 자리는 필수! 부채와 물도 필요하다. 가장 뒷자리는 엔진 때문에 발이 뜨거울 수 있고, 햇빛 때문에 목이 뜨거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혹시나 소매치기가 있을 수 있으니 가방이나 중요한 짐은 옆에 두지 말고 안고 타기로 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붙어 앉기, 어른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미덕은 당연한 것. 무릎이 아작 날 듯한 좁은 자리, 몸이 들쭉들쭉하는 흔들림, 예상치 못한 바깥의 냄새는 적응해야 하는 필수코스이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독서와 음악감상도 가능해 질 것이다.

예외) 잘 가고 있던 버스가 고장 날 수 있음.

버스 안의 차장



다시 한 번 미얀마의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의 귀를 쫓긋하게 한 소리가 있다.

바로 버스 안의 소리. 우리나라에 티머니가 있다면 미얀마에는 차장이 있다. 그들은 행선지를 크게 외치며 버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탑승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며, 자신의 버스가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까지 돕는다. 그렇게 버스 안과 밖을 종횡무진 누빈다. 인상이 무섭게 생긴 사람도 있지만, 버스 안의 사람들, 특히 어르신과 여성, 아이의 안전을 위해 애쓰는 버스 안의 촌데레(?)이다. 사진 속 모습은 애린 단원과 차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밍글라바와 안녕하세요가 어우러진 즐거웠던 대화. 결국 친해져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내렸다는 후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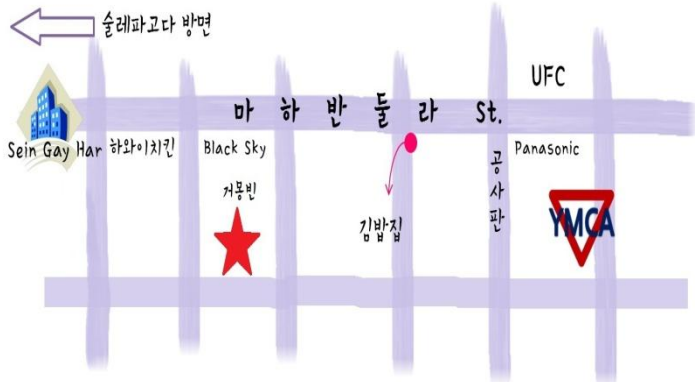
INSIDE raonatti - ④ 생활의 일부 '슈퍼마켓'

우리의 미얀마 생활에 힘을 더해 주는 그 이름. 슈퍼마켓. 미얀마에는 대형 슈퍼마켓과 '제'라고 불리는 재래시장이 여러군데 자리하고 있다. 그중에서 양곤YMCA와 가장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슈퍼마켓을 소개한다.



슈퍼마켓, 그것은 고마움

양곤 Y에서 가까운 슈퍼마켓 2곳, 거몽빈과 Sein Gay Har. 더운 날씨에 그곳의 시원함은 가물 속의 단비와 같다. 대형마트이기에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그곳. 생필품을 구매하기 위해, 아니 배고픔에 힘겨워하는 아띠들이 배를 채우기 위해 가는 그곳은 아띠들의 미얀마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장소이다. 앞으로도 슈퍼마켓과의 추억은 계속 될 것이다.



INSIDE raonatti - ⑤ 팀원들과의 소통(인생로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 속에 자라온 단원들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으니... 단원들은 크고 작은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지난 날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인생로드'를 그려보기로 했다. 물론 술도 함께 ㅎㅎ



아띠들의 인생 이야기

2015년 3월 25일, 아띠들은 저녁으로 나온 감자를 보고 생각했다. 아, 이걸 맥주 안주로 먹으면 참 좋을텐데... 그 길로 바로 저녁을 정리하고 남은 감자를 703호에 세팅했다. 각자 마트에서 장만한 과자와 치즈 그리고 냉장고에서 갓 꺼낸 신선한 병맥주를 돛자리 위에 펼쳐놓으며 5인은 한껏 기대에 찼다. 그렇게 도란도란 시작한 이야기 꽃은 차츰 인생곡선을 향해 흘러갔다.

이한솔 단원의 인상 깊은 여행 에피소드부터 종옥 단원의 터무니없는 주장(중학교 시절 본인은 공부를 잘했으며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많았다고 한다)에 이르기까지 짧게는 21년, 길게는 26년의 아띠들의 인생여정을 처음으로 꼼꼼히 훑어본 시간이었다.

이 : 나는 내 나름대로 팀원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었는데, 의외의 모습들과 몰랐던 점들을 알게 돼서 정말 정말 정말 좋았음 ㅎㅎㅎ(종옥 오빠의 이야기가 매우 충격적이었달까..)

최 : 어...음(생각정리중) 시작할게. 나는 되게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26년간 이런저런(x2) 이야기들이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웅얼) 정리가 된 것 같달까.

홍 : 난 내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너무 많아서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몰아쳐서 말해서 속이 시원했고, 나만큼이나 애들도 많은 일들을 안고 살아왔구나 느꼈달까.

김 : 종옥 오빠에게 네 명의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 오빠가 어서 이 곳에 있는 여자 세 명의 마음도 꼬셔주길 바라달까..?

정 : 울산에서 팀원들끼리 자기소개서를 돌려 읽을 때 저만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 계기로 처음 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어 새로웠달까?

INSIDE raonatti - ㉞ 파고다 관광

미얀마는 90%가 넘는 사람이 불교를 믿기에 ‘불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다. 때문에 대도시를 가든 도시 외곽을 가든 화려한 금빛으로 수놓아진 파고다를 쉽게 볼 수 있다. 단원들도 이번 한달에 총 두곳의 파고다를 다녀왔다.



파고다 천국 ‘양곤’ 솔레파고다.마하제잇파고다

양곤은 높이 48m의 솔레Sule 파고다를 중심으로 지어진 ‘계획 도시’이다. 그래서 솔레파고다를 ‘양곤의 심장’이라 부른다. 약 3세기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8각형으로 이루어진 솔레파고다는 양곤 심장부에서 도시 전체를 내려다 보고 있으며 여행자들이 양곤에서 길을 찾을 때 유용한 이정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띠들은 ‘산’ 주에서 온 산드라의 손님들과 함께 솔레파고다를 방문했었다. 밤에 본 솔레파고다는 금빛으로 화려하게 빛났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조용

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그윽한 향 냄새가 파고다 내부를 가득 메웠다.

그러나 단원들이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미얀마 정부의 교육정책을 반대한 시위가 솔레파고다에서 열렸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우리가 방문하기 몇일 전에도 이곳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들 몇몇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그들의 요구안이 평화적으로 협상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큰 부처님이 앉아계신 파고다는 ‘마하제잇 파고다’로 단원들의 사이트 중 하나인 마 오끌라바에 위치해 있다.



INSIDE raonatti - ⑦ 여가 생활

끝없이 재미와 즐거움을 찾는 우리에게 여가생활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심심할 때 뭐하지?

울산 지역 훈련 마지막 날. 찜질방에 온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고민이 생겼다. 바로 “심심할 때 뭐하지?”.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활동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그 중에서도 여가 시간은 우리 팀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하다. 팀의 막내 태규 단원은 자기 삶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 여가생활이라고 말할 정도이다.

5명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를 바라는 우리. 앞으로도 끊임없이 여가 생활을 고민하고, 찾아나가며 즐길 것이다.



보고, 하고, 마시고.

우리가 지난 여가 생활을 보냈던 모습으로는

- 영화 : 하루가 무료하다고 느껴질 때! 많은 영상물을 가져온 태규 단원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첫 영화 기술자들부터 최근에는 인시디어스까지 다양한 장르로 우리의 여가시간을 함께 했다.)

- 카드게임 : “우리 카드게임하자!”. 너무 심심할 때, 활동 중간 쉬는 시간 중에, 회의 중 진전이 안 되고 답답할 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재미를 찾는 우리. 그럴 때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카드게임. 그러나 항상 열 받으며 끝나는 건 함정.

- 술자리 : 태규 단원을 비롯하여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팀. 적당한 음주와 함께하는 대화는 평상시와 다른 매력이 있다. 위스키부터 맥주, 스파클링 와인까지. 다양한 술과 함께 하는 분위기는 당연 최고.



술레파고다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방으로 들어왔다. 어디선가 꽤 쾌한 냄새가 났다. 나는 그것을 아주 낯은 전자기기가 품은 오래된 냄새임을 직감했다. 작동되지 않는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곳에 거대한 물건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회색빛깔 냉장고...

아, 저 찬란한 빛을 보라.

깊은 밤 술레파고다보다 더 찬란한 너의 빛을 보라.

냉장고, 네가 잉태한 빛이로다.

그러나 너는 빛보다 강력한 FREEZING

우리의 더위는 FROZEN...

| 글 · 홍선진, 김어린 |

| 사진 · 최종욱 |



Mr. Butter's butter poem

버터씨의 버터시

길거리의 아주 작은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생각에 잠기는 감성주의자.
느끼함은 덤으로 가지고 있는 그가 감성 충만한 메시지를 전한다. | 최종옥단원



못난이

시작은 간절했다.
뜨거움이라는 것이 나의 의미인 듯
말랑말랑한 내가 언제라도 될 수 있을 듯

시작은 눈부셨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듯
그들의 삶과 미소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듯

그리고 지금 나는 못난이다.
나라 수없이 부딪히고
끝없이 행복을 두드리는

그리고 지금 나는 못난이다.
수많은 고민 속에 무너지지만
생각 못한 행복에 웃으며 마음을 다지는

오늘도 못난이의 하루가 지나간다.

미얀마의 여름을 견디는 법



평균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미얀마의 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5개월을 지내야 하는 라온아띠 5인의 미얀마 패션을 전격 분석한다 | 이한솔단원

1 그녀의 이야기 | 바지 찢어지던 날

1차사태

때는 바야흐로 3월 24일,
우리는 어김없이 랑따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랑따야 널서리까지는 버스를 타고 내려서 라인카로 한
번 갈아타야 하는데 그 라인카에서 일이 터질 줄이야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

3명의 여자단원들은 그 전 주에 보족시장에서 산 새
냉장고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예쁘긴 했지만 신
축성이 매우 없어 조심해야만 했다.

“우두둑”

그 중 애린단원의 바지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버스가
올려 퍼졌다.

2차사태

랑따야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반가워 한걸음에 달려와
애린단원에게 안겼다.

(당시 아빠다리를 하고 있음) 그 순간 아이의 무게를
바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결국 바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찢어지고 말았다.

널서리고 뭐고 다 때려 치고 집에 가고 싶어진 애린단
원은 일단 급한 대로 랑따야에 있는 옷가게란 옷가게
는 다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상한 과일 바지를 하나
장만했는데..



이 후, 막내 태규단원은 애린단원의 꼬임에 넘어가
바지를 구매하였고 그는 과일 문양에 개의치 않고
밖에도 나가며 잘 입고 다닌다는 후문.

1 TIP | 냉장고 바지 고르는 팁

더운 날씨에 얇고 시원해 통풍이 잘 되는 바지가 필
수인데 우리는 매일 활동지에 가므로 장시간 버스에
앉아있어야 하니 얇고 신축성이 우수한 바지를 고르
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은 자들이여, 예쁜것이 다가 아니다!!!!!!!
무조건 만져보고 잘 늘어라는 바지를 살 것, 보족시
장 바깥 난전에서 파는 바지들은 예쁘고 저렴해서
혹할 수 있으나 바느질이 상태가 형편없고 정말 신
축성이 제로에 가깝다. (애린단원은 결국 바지를 버
리고 나머지 두 명의 바지도 모두 터져 바느질을 해
야 했다)

뒷장에서 소개되는 바지(보족시장 2층에서 구매)
를 14기는 꼭 사세요..★



미안마의 여름을 견디는 법

Get it Solty

평균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미안마의 여름, 그 뜨거운 태양 아래 5개월을 지내야 하는 라온아띠 5인의 미안마 패션을 전격 분석한다 | 이한솔단원



1

이 모자 없이는 그 어디도 나갈 수 없다!!!! (이거 안 쓰고 다른거 썼다가는 진심 얼굴 다 썩까매집니다) 출국 전, 어리석었던 5인은 스냅백따위로 미안마의 뜨거운 햇볕을 충분히 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하루만에 엄청난 실수임을 깨달음.



3

동전이 없어 작은 단위의 돈도 모두 지폐로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미안마 쇼핑의 메카 보족시장에서 귀여운 수제 목걸이 지갑 특템 (너무 귀여워서 우어어어어어) 목걸이지갑 보족시장 2800짖!

2

방에 충분한 수납공간이 없거나 화장대가 없어 불편하다면 의자를 활용하면 좋음! 13기 여자단원 3명은 방안의 의자를 침대 옆에 하나씩 두고 개인용품을 두는 화장대로 사용하고 있음. (덕분에 남자 방 의자는 모두 자취를 감춤)



6

K단원은 유명 아웃도어 K브랜드에서, L단원은 다이소에서 각각 쿨토시를 구매. 매일 착용 해야하는 아이템이니 당연히 오래 사용하면 늘어날 수밖에 없음. K사 제품은 한 달도 안되어 로고가 벗겨지기 시작하고 보풀도 많이 일기 때문에 가격대비 다이소 쿨토시가 매우 좋음. 여러개 사오는 것을 추천. | 다이소쿨토시 아마 3000원!



그리고 이왕이면 검정색을 추천 랑따야! 한 번가면 흰색은 어차피 검정색이 됨. 그리고 일정 수준 이상 더러워지면 빨아도 빨리지 않아요!!! ㅎㅎ!!!!!!!!!!!!!!

4

신발도 없는 여자단원들은 미안마에 도착하자마자 슬리퍼를 찾아나섬. 양곤Y근처 길거리 시장에서 현지 간사님 ★산드라도 탐낸★슬리퍼 구매 (엠보싱이 대단해 굉장히 폭신하며 장시간 신어도 발가락이 아프지 않음) | 커플슬리퍼 양곤Y근처 2800짖!



5

사이트에서 입을만한 바지가 없었던 여자 단원들. (이쯤되면 캐리어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보족 시장으로 향했다. (두 번 밖에 안갔어요) 열심히 발품을 판 끝에 2층에서 (세상에 이보다 더 화려하고 얇은 바지는 없다!) 냉장고 바지 구매. 실근기가 최강 보들, 안이 훨씬 비칠 정도로 얇지만 입으면 또 신기하게 비치지 않는 마법의 바지탈까. 얇아서 빨래도 잘마름. (선진 단원의 바지는 마치 우주를 연상케함) | 냉장고바지 보족시장 2500짖!





EVERYBODY MYANMAR

다함께 미얀마

구릿빛 피부와 동그란 코, 커다란 눈을 소유한 김애린 단원. 그녀가 호스트기관 5층에 앉아있노라면, 미얀마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말을 걸어오곤 한다. 미얀마 사람보다 더 미얀마 사람같이 생긴 김애린 단원이 전하는 미얀마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미얀마 기본 정보

미얀마의 공식 국명은 미얀마 연방 공화국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이다. 군사과도정부에 의해 1989년 버마 연방 Union of Burma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개칭하였으나 2010년 10월 21일 신헌법에 의해 현재 국명으로 개칭하였다. 면적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크며, 한반도의 약 3.5배이며 남한의 6배이다. 한국과는 2시간 30분의 시차가 나고, 기후는 열대 및 아열대 기후에 속한다. 미얀마는 우기(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여름(3월 중순부터 5월까지), 건기(10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뚜렷한 3계절을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꺄’이라는 통화를 사용하고 모병제 국가이며, 과거 군사정부의 역사를 지니고 있던 만큼 어마어마한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얀마Myanmar인가? 버마Burma인가?

단원들과 함께하는 YMCA 스태프 중 한명인 ‘뽀뽀’는 미얀마라는 단어보다는 ‘버마’ 혹은 ‘버미’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달리는 미얀마 버스의 속도를 두고 뽀뽀는 “It’s Burmee’s speed” 라고 말했다. 어쩔 땐 미얀마라고 하고, 또 어쩔 땐 버미라고 하는 그녀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버마냐고, 미얀마냐고. 왜 같은 나라에서 두가지의 나라이름을 쓰고, 이 두가지 나라 이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미얀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용어인 ‘미얀마어’는 문어체와 구어체로 나뉜다. 그래서인지 미얀마어로 나라 이름을 쓸 때는 ‘미얀마’라고 쓰지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버마’라고 말하는 미얀마 사람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이유인 즉슨 1989년 군사 과도 정부인 SLOOC(현재SPDC)가 ‘Bruma’였던 국가의 이름을 영어로 표기되는 국명을 ‘MYANMAR’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버마’라는 나라 이름은 전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주 종족인 버마족만을 나타내는 나라 이름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에 135개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자는 의미에서 미얀마라는 이름을 공식국명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미얀마의 반정부 인사들과 단체들은 합법적인 정부가 아닌 군사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국명을 변경했다며 아직까지도 ‘버마’라는 국명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이유로 인해 미얀마 사람들은 두개의 나라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과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같이 쓰고 있듯이, 동일한 뜻의 이름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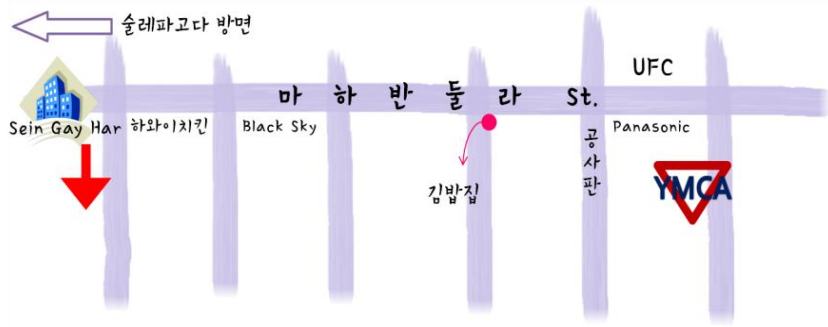
바잇사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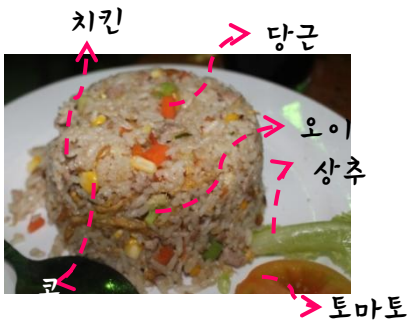
계속되는 활동 중에 계란볶음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지친 아띠들에게, 거침없는 에너지를 퍼주는 그곳, KYEIZUBE 3월호 선진이는 바잇사레 (배고파)에서는 양곤의 식당 겸 호프, POWER를 소개하고자 한다. | 흥선진단원

“눈에서 별이 퐁퐁 터지는 맛.”

지난해 11월 POWER를 찾은 정○○ 간사는 갓 내놓은 신선한 맥주를 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Y근처에 어마무시한 맛집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나선 5인은 2주 간의 수색 끝에 꿈에 그리던 POWER를 발견하고야 말았으니, 위치는 Y에서 Sein Gay Har를 마주하고 바로 왼편 골목으로 꺾은 곳 되시겠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어스름한 저녁, 테이블에 간단한 안주거리를 올려놓고 미안마비어 한잔을 손에 쥔 손님들이 간간히 보였다. 최대한 선풍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자리잡은 그들은 정 간사가 추천한 볶음밥과 미안마 맥주를 주문해보았다. **여기, 또우괘 씨비야 빼 바!** 곧이어 캔맥주로 허기를 달래던 다섯 앞에 기포가 송글송글 맺힌 생맥주(!)가 놓여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한 모금 꿀꺽 하니, 과연! 입 속의 잘근잘근한 별들이 퐁퐁 터지는 느낌이랄까. 우주 위로 곧 승천할 수 있을 것 같은 붕 뜬 감동은 덤이다.



갓 나온 볶음밥은 고기와 생선, 감자와 계란으로 배를 채우던 5인에게는 매우 진귀한 야채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주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한다. 기름에 찢지 않은 생(生) 토마토, Y 식사에서는 쉬이 볼 수 없는 신선한 오이와 당근, 비싸다는 이유로 첫날 이후로 멸종되어버린 썰따(치킨)! 볶음밥의 종류는 5가지. 모두를 먹어본 자로서 다섯 가지 매력의 볶음밥을 리뷰 해보도록 하겠다. 기본야채 구성은 같으며 치킨 대신 메뉴에 따라 재료가 대체된다.

PORK | ★★☆☆☆

자주 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먹을 가치가 없음. 1700

가격대비 만족도 BEST. ★★★★★ | **CHICKEN**

비싸서 못 먹는다는 치킨을 가루형태로라도 접할 수 있음. 1700

PRAWN | ★★☆☆☆

맛 없을 수 없는 재료이나 치킨이 너무 막강함. 1900

★★★★☆ | **SQUID**

해산물의 담백함을 사랑한다면 강추. 1900

SEA FOOD | ★★☆☆☆

풍성한 해산물. 그러나 가격대비 그닥이랄까. 2200

POWER에서 주문할 때 유의해야 하는 순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손가락으로 주문하는 경우. POWER를 찾아간 5인은 무려 12장에 걸친 메뉴를 분석한 후 볶음밥 외에 치킨샐러드를 주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바르게 생긴 알바생이 그들 앞에 내놓은 것은 오징어샐러드. '먹어나 보자'란 마음으로 시식을 시작한 5인은 채 몇 번 퍼먹지 못하고 포크를 내려놓게 되는데...

이후 실패에 대한 보상심리가 발동한 이들은 치킨볼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지만 치킨볼의 사정도 그리 녹록치않다.

POWER의 메뉴는 무려 13장. RICE · VEGETABLE · SPECIAL DISHES · OTHERS · SALADS · MUNG-BEAN · CHICKEN · PORK · DUCK · MUTTON · CALAY POT · PRAWN · SQUIDS · FISH · EEL · SOUP · BARBECUE 17개의 카테고리 나눈어 제공하고 있으니, 진정 POWER를 즐기고자 한다면 과감히 다른 메뉴에 도전해 보길. | 홍선진 단원

ABOUT 선진이입맛 객관성 평가

숙주두부, 잘 먹음. 감자, 맛있게 끝까지 먹음. 소고기, 남기지 않음. 돼지고기, 비계도 먹음. 훑맛계란, 설렁 훑이 나와도 먹음. 심지어 별 한개짜리 오징어샐러드도 다 먹음.

평가 결과, 별점★☆☆☆☆



오징어샐러드
★☆☆☆☆



치킨볼
★☆☆☆☆

선진이는 바잇사레 4월호에서는 볶음밥에 가려져 제대로 소개할 수 없었던 미얀마의 맥주들을 전격 비교한다.



Drunkен Gyu

썩썩미안마어



[미안마어]

미안마어가 어떻게 생겼을까 쉬이 상상이 가지 않는다면 고대 갑골 문자를 떠올려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미안마어는 언어 계통으로 볼 때, 차이나-티벳어족의 티벳-버마어계에 속하며, 언어 사용자가 4천만명을 넘는 이 언어계의 대표적인 언어에 속한다. (성조를 가지고 있고 어휘의 대부분이 단음절이다).

미안마어 자음은 ‘까’부터 ‘야’까지 모두 33개, 모음은 7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외에도 복합 문자, 폐음절 등이 존재하여 이 모두를 외워야만 글자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정태규 단원을 제외한 모든 단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드렁큰큐의 썩썩 미안마어에서는 실생활에 정말 유용한 알짜배기 표현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음식]

- 1. 닭고기 → 썩따
- 2. 돼지고기 → 왜따
- 3. 생맥주 → 씨비야
- 4. 볶음밥 → 터민쭈
- 5. 닭튀김 → 썩쭈



양곤 롯데리아의 썩따 햄버거



파워 썩따 터민쭈

[일상생활]

- 1. 안녕하세요 → 밍글라바
- 2. 만나서 반갑습니다. → 뚜에야라 완따바데.
- 3. 제 이름은 OOO입니다.
→ 썩노(남자)나메 OOO바
썩마(여자)나메 OOO바
- 4. 이름이 뭐예요? → 나메 벨로 콜레
- 5. 밥 먹었어? → 씨비빌라
- 6. 밥 먹었어요. → 씨비바비
- 7. 아직 안 먹었어요. → 마 씨데 바부
- 8. 몇 살이야? → 어떼 벨라울레
- 9. 어디에 가요? → 베 뚜아 말레
- 10. OOO에 가요. → OOO 또아메

라잇 카욱메 하면 따라 접는다.



[널서리 및 활동]

- 1. 따라 해 → 라잇 로웃바
- 2. 따라 불러. → 라잇 소바
- 3. 한 줄로 서 → 딘 씨바
- 4. 붙여, 접어, 그려 → 깃바. 카웃바. 풍 쉐바.
- 5. 잘 가 → 따따

다섯의 이야기

HANSOL AERIN SEONJIN JONGOK TAEGYU



미얀마에 온지 4일 째 되던 날,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내가 생각했던 미얀마의 모습, 양곤의 모습과 내가 서 있는 이곳은 너무나도 달랐고 처음 느껴보는 숨이 막힐 듯한 더위와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도착하자마자 아프기 시작한 몸까지 나는 무엇 하나 온전한 것이 없었기에 그저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뿐 이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수없이 고민했던 내 꿈과 여러 물음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진 상황이 싫었고 그 누구보다 어디서든 잘 적응할 것만 같았던 내가 너무나 낯설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곳이 점점 좋아진다.

사실 나는 사이트에서 쉼빠따를 제외하고 싶었다.

우리의 활동 안에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내 욕심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방학인 까닭에 아이들이 없는 학교에서 우리가 할 일을 도저히 찾지 못할 것만 같았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쉼빠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곳에서 쓰레기를 줌의 일을 가장 즐거워하며, 이번 주부터는 7명의 아이들과 작은 한국어 교실을 함께한다.

사소함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에 대해 배운다.

어제는 랑따야 가는 버스에서 처음으로 창문이 없는 자리에 앉았다.

처음으로 불평스럽지가 않았다.

뒤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덕분에 먼지를 뒤집어쓰지 않아도 되었고,

세찬 바람에 머리가 헝클어지지도 않았다.

사실 이런 변화가 조금 두렵기도 해서 아직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치만 확실한 건 이런 나도, 저런 나도 그저 묵묵히 지켜 봐주는 우리 팀원들과 좋아해주는 여기 사람들 덕분에 나는 이곳에 점점 물들고 있다는 거다.

| RAONATTI 13th YANGON HANSOL |



ESSAY

홍's Essay

미얀마에 온지 한 달이 되어가는 3월의 끝, 이제는 익숙해진 좁은 버스에 앉아있다가 문득 리온이띠 서류 합격 날이 떠올랐다.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소리를 질러버리던 내 모습. 그때 그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더라. 한달 간의 국내활동, 한달 간의 쉼이 끝나고 덜컥 미얀마에 도착했을 땐 열심히고자 했던 내 동기가 열어지고 있었다.

도시의 활력과 시골의 한적한 풍경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웬만한 적응에 자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양곤에는 정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3월 한달 간 겪어본 양곤은 도시의 불빛은 없고 시끄러운 교통체증만 있으며, 시골의 한적한 풍경에 젖기도 전에 고인 물에 덩실거리는 쓰레기 냄새가 코를 찔러오는 곳이었다. 그런 생각으로 지쳐갈 무렵,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내 나라와 같을 줄로 기대한다면 굳이 내 나라 밖에서 시간을 보내려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인가?

같길 바라고 온 양곤은 아니었지만, 아니 오히려 한국과는 색다른 느낌을 얻어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내가 나름대로 기대한 색다름이 그만큼의 실망감을 만들어주었나 보다. 내 활동에도 좀 열심히고 싶고 우리의 관계도 끈끈했으면 하고, 홀로 쉬고 싶기도 하고 내 미래도 준비하고픈 그 많은 욕심들이 불평과 불편 속에 머물게 하고 지금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든 것은 아닌지. 실망했다면 실망한대로, 내 나라 밖인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의미를 다시 처음부터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직도 양곤은 여전히 시끄럽고 악취가 나기도 하며 먼지바람 때문에 눈이 따가운, 내겐 삭막한 공간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나를 포함한 다섯이 있고, 좋다고 달려드는 아이들 그리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I RAONATTI 13Th YANGON SEONJIN I



이곳으로 떠난 날에 대해 생각해본다.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국제선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어둠이 내려앉은 인천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말뿐이었던 대학생들과 지쳐버린 몇몇의 관계들, 조바심과 불안이 내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막연히 새로운 세상으로 떠난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오래 시간 기다려온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마냥 들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아주 행복한 도피처일것만 같던 미얀마는 아주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서있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나는 라온아띠를 통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느끼고 싶었다. 그러나 내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던 미얀마는 내가 꿈꿨던 기대와 정리하고자 했던 생각을 속수무책으로 무너뜨렸다. 내가 밭 밭은 양곤은 현대식으로 지어진 여러 개의 상업빌딩과 고급호텔들로 둘러싸여 있었고,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고급주택가가 있는 반면 도시 한 구석을 빼곡히 매운 낡은 아파트들도 준비해 있었다. 그곳에서도 우리 팀원이 가는 사이트들은 위와 같은 도시의 풍경을 오려내고 나무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가옥과 먼지 자욱한 비포장 도로가 있는 도시 외곽에 놓여져 있는 곳이었다. 정부의 토지정책으로부터 밀려나거나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자리를 옮겨 형성된 마을이었다. 미얀마는 이렇게 이질적이고 상반된 것들이 모여있는 잡지마냥 산만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나라 한 가운데 매일 입맛에 안 맞는 음식에 투정부리고, 특하면 배탈이 나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제주 똌바레(고맙습니다)’만 해대는 내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곳에서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려던 것이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쉽게 짐작할 수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덜컥거리는 낡은 버스를 타고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동하기도 똥 냄새 나는 밥을 또 먹어야 한다는 사실도 싫었다. 하루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집에 가려면 몇 번의 밥을 더 먹어야 하는지 세어본 적도 있었다. 무려 500번이 넘었었는데...

그랬던 내가 이제는 덜컥거리는 버스에서 책도 읽어보고, 글도 적어본다. 밥도 우리 팀원 다섯 중에서 2등으로 잘 먹고(1등은 선진언이다), 배탈이 나면 ‘변비보다 낫겠지’하고 생각한다. ‘네 까웅 엘라(잘지냈어요?)’도 하고, ‘짜비비라(밥 먹었어요?)’도 하며 이곳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그리고 진심으로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있고, 분명한 답을 원하는게 아니라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자 다짐해본다. 어쩌면 내 설부른 기대와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이 이곳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길을 더 디게 만들었기에 앞으로는 내 생각을 거둬내고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면의 사진이 내가 아닌 나와 함께한 이들의 사진으로 채워지길 바래본다.

| RAONATTI 13Th YANGON AERIN |



ESSAY

이 곳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들었던 느낌은 더위도 낯선 것도 아닌 ‘이 곳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가 시차 때문인지, 해가 빨리 떠서 그런 것인지, 적응 문제였는지, 아니면 느린(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 때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외쳐댔던 내가 이곳에 온지 1주일 만에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만의 장벽을 치고 열지 못했다. 분명히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것이 힘겨웠고 나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달라졌다. 인정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내가 또 다른 인정을 배우고 깨닫는다. 벽은 깨라고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이라고 믿는 나이기에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원 활동에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활동에 있어서 거창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하고, 무엇보다 잘 지내고 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지원하고 합격하였으며 지금 이 곳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어 도전이 가득한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없이 고민하고 부딪히고 깨지는 이 시간이 절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닐 것이라 믿는다.

시작의 달. 이번 3월은 나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물론 쉽지 않았고, 어려웠고, 이 곳의 모든 것에 적응하며 애썼던 지난 날이었지만 첫 달은 보낸 나에게 묻고 싶다. 안녕했는지? 행복했는지?

4월은 더 치열하길 바라며 밀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는 툭툭이의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한다.

| RAONATTI 13Th YANGON JONGOK |





출국하기 전 미얀마에 2번이다 갔다 왔으니 적응에 문제가 없고, 다른 팀원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행과는 다른 자원봉사라는 다른 방향으로 오게 된 미얀마는, 저번에 왔을 때는 못 느꼈던 풍경과, 불편함이 있었고, 라온아띠라는 팀과 같이 움직이게 된 탓일까, 잘 적응할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새롭고, 힘들게 느껴졌다.

첫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국내에서부터 상상해왔던 것과는 다른 활동을 하면서 고민도 하고, 나와는 다른 팀원들이 생각하는 고민을 보면서 나는 왜 저런 생각이 안 들까 하며 걱정을 해봤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억지로 웃으며 활동을 하는 나를 보며 왜 라온아띠에 지원했었지 라는 생각, 미얀마어 과에 다니고 있는 지금 무언가를 조금 더 보고 하고, 배우려고 하다 보니 조금 부담도 느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활동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아직 해답을 찾진 못했지만 4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 보려 한다.

팀원과의 갈등 없이 무난히 보낼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벌써 몇 번 싸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싸우게 되겠지만, 서로 다른 4명과 함께 보내는 한 달 동안 힘들면서도 즐거웠고, 앞으로의 어떠한 4개월이 될지 기대된다.

재주베, 고래워!

RaonAtti 13th MYANMAR YANGON

그 첫번째 재 이야기

-THE END-